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8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새싹포교 무관심

지난해 청소년 대화의광장에서 전국 1천6백4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 청소년 종교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9.6%가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어린이 · 청소년이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교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관심 갖는 종교는 개신교(56.9%), 불교(21.7%), 천주교(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법회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구회(회장 지원)에서 서울지역의 어린이법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회가 진행 중인 사찰은 85곳이며, 각 법회 참여 수는 20여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법회 현황도 서울 · 경기 146, 인천 20, 강원 48, 대전 · 충남 74, 광주 · 전남 38, 부산 · 경남 138, 대구 · 경북 134, 제주 16곳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전체 2천여 사찰 중 1/3 정도.

어릴때 불교적 환경 커서도 불자의 삶

깊은 지도교사들은 침체 원인으로 우선 종단의 무관심을 꼽는다. 종단의 실질적인 후원과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법회 활성화를 위해선 어린이 전담부서를 설치, 장기적인 포교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에 쏟는 불교계의 관심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6월 조계종 포교원이 일선 지도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1.7%가 경력 1년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불향'(佛香)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과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교사들로는 어림없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릴때의 불교적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 어릴때는 가소성이 대단히 커서 이때 형성된 불교적 신행은 영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교육학자의 이같은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자비의 대중화' 본격화

조계종 NGO해외봉사원 지속적 파견
진각종 국제협력단 가입 구호사업 전개

불교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불교시민사회활동 육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봉사단원 해외파견, 한국국제협력단에 가입하는 등 불교계의 시민 ·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불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의 제고와 '자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성조)는 7월 26일 불교 시민 · 사회단체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서를 경봉련 불교환경교육원 등 42개 단체에 발송하고, 조사결과를 종단 사회활동 관련 종책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사회부는 이와 함께 불교사회의제 개발을 위한 팀을 구성, △불교사회운동의 근본사상 정립 △다양한 사회활동 분야 개척 △불교사회활동의 전형 창출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또 NGO활동 강화를 위해 혜성스님(비구니, 동국대 대학원 재학)을 해외자원봉사단원으로 선발해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해외봉사단원 선발 및 파견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나 불교계가 참여하기는 처음이다.

조계종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NGO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부장 성조스님은 "앞으로도 종단은 NGO 봉사요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도 7월 16일 한국국제협력단의 NGO에 가입, 보다 활발한 국제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민간원조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등록 단체는 협력단으로부터 사업비와 봉사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회는 금년 내로 스리랑카와 네팔에 현지 지회를 설립, 지속적인 국제구호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북한주민 및 재중동포, 탈북자 돕기사업도 펼친다.

정성운 · 한명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산사 음악회 7월24일 충북 진천 보탑사(주지 지광) 3층 목탑 앞뜰에서는 신사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맑게 씻어준 청량한 선율들이 별빛과 반딧불을 타고 울려 퍼졌다. 중요무형문화재 동희스님의 범패 '팔부금강소리', 니르바나실내악단의 '유모레스크', 정율스님의 불교 가곡 음성공양 등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에서는 1천여 관중들이 참석, 고운 선율에 온갖 번뇌를 실어 보냈다.

영축총림 해제 결의

통도사 말사 3곳 직영사찰로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조계종 141회 임시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7월 26일 오전 불교회관1층에서 141회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영축총림 해제, 통도사 3개 말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등을 결의했다. 통도사가 총림에서 해제됨으로써 주지 임명권을 총무원에서 행사하고, 방장 중심에서 주지 중심의 종무행정이 이뤄진다.(관련기사 2 · 3면)

■통도사 영축총림 해제 결의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고산 총무원장은 영축총림 해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종회결의에 따라 통도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영축총림 해제를 요청했다.

원택스님은 또 "통도사에 취하고 있는 승적발급 거부, 행자교육 입방 거부, 비구계 수지 거부 등의 행정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종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은 통도사가 총림이기 때문이며, 현재대로 방치하면 분종으로 간다"며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혜창스님은 표결에 기권했다.

■문수사 등 직영사찰 지정

원택스님은 직영사찰 지정 승인 제안설명을 통해 "종단분규를 조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룡사 해남사는 분규의 원인으로, 문수사는 분규와 재정의 종단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직영사찰법을 적용해 직영사찰 지정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종회는 총무원의 제안대로 3개 사찰의 직영사찰 지정을 승인했다. 월우스님 등은 통과에 동의하면서 한시적 직영사찰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정성운 기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 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 ·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총관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혜암종정 '사면 복권' 재가

총무원 "승단 화합-종단 위상 회복 조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7월 30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요청한 사면 ·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 복권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98년 12월까지 징계집행중인 68명(멸빈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사면 9명, 복권 2명, 사면 · 복권 5명 등 모두 16명에 대해 시행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이번 사면 · 복권과 관련 "자비문중의 일불제자로서 승단의 화합을 이루고, 작년 종단사태로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공원 입장료 폐지 촉구

조계종 "입장권 당일중복사용 반대"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7월 29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국립공원내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사찰경내지내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 설치금지를 결의했다.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의 이같은 결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이 공원입장권을 '당해공원 발매당일 1회 사용'에서 '당해공원 발매당일 사용'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은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입장권 사용 개선에 대하여 총무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8일 공단을 방문한 재무부장 일철스님과 호법부장 종고스님에게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공원입장권 '사용 개선 방침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성운 기자

사 령

의원면직 한명우
편집국 취재부 기자
1999년 7월 30일자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성보도난 백서 발간 11면
부다피아 캠프현장 14면

21세기, 미래불교의 지평을 여는 불교계 초유의 종합잡지

신국판, 240쪽, 값7,000원

불교저널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저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이에게는 각성을 촉구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상호간에 적대감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인류사에서 편견이 인류를 불행하게 한 사례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저널』은 단호히 편견을 거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포교의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동기와 결과가 좋다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좋지 않으면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불교저널』은 이 점에 유의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포교의 길에 나서는 제자들에게 "물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일이 고독한 일임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불교저널』은 고독한 이 일을 스스로 짐지고 나섰습니다. 교계와 일반의 동참으로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창간사 중에서)

법륜공(法輪功)은 부불사교(附佛邪教)인가

1억의 수련자를 가지고 있다는 파룬궁(法輪功)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파룬궁은 과연 불교에 부속된 사교인가?

석학의 대담 리영희VS정방조

미래사회와 불교

불확실한 미래, 한국불교의 적극적 역할이 세시대와 세역사를 이끌어 간다

프랑스에 부는 불교바람

프랑스 시사주간지가 특집보도한 프랑스 불교의 현주소

수백개의 선불교센타와 불교명상센터, 그리고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 프랑스 국민중 불교신자가 60만명, 성인의 15%가 불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현대성과 그 가치에 매혹되는 프랑스인들 / 참선의 중심지 페리고리 / 철학과 불교는 함께 가는 단짝

송산 스님

군사정권하의 미얀마 불교 티베트, 두 사람의 판첸라마 돌아오지 못하는 「직지심체요철」

특집안내

본지는 다음과 같은 편집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열린편집을 위하여 독자여러분의 제언과 투고를 기다립니다.
1. 여성불교 2.환경과 불교 3. 재가불교
4. 대은(大隱)스님연구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나 식자스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창간특집

미래의 과학은 불교의 동반자인가 적인가

주문형 인간시대, 인간복제는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적 연기사상의 구현이가, 반연기적 재앙인가?

불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재/인간복제의 문제와 불교의 입장/인간복제를 향한 광란의 질주/인간복제의 윤리적 부당성/인간복제와 자연의 본성/대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

무엇이 태국불교를 괴롭히는가

돈의 소용돌이 속에 농락당하는 태국의 스님들

태국 불교계의 스캔들에 대한 충격적인 리포트 — 신태국로 스님

시사칼럼 종교에 홀린 미치광이 집단 윤청광

8 · 15 기념논단 일제하 불교계의 광복운동 김광식

세계문화유산속의 불교유적 네팔의 스와얌부나트 김종면

주제가 있는 경전 마음 영어로배우는 부처님말씀 법구경

화보 고구려금동여래좌상/분단이후 최초 신계사참배/간다라 부처님/네팔불교/군사정권하의 미얀마불교/광고에 등장하는 스님들/파괴된 티벳트 사원
시 눈부신 사람(이청화) 외
단편소설 꿈(김삼조)/회한(김소하)
희곡 한국최초의 불교희곡 "무란분"(김홍우)
영화 한국최초의 불교영화 "마음의 고향"(문학산)
연극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아노마"(목호찬)
동화의 세계 은하철도의 밤(조명렬)
만화 맨질스님(정수일)/부처님의 유교(고시로다케시)

역사의식 재고를 위한 공개설문

귀의삼보하옵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불교는 창조적인 21세기를 열어 가지 위해서 지난 20세기 1백년을 돌아볼 필요를 느낍니다. 이에 스님과 제가신도 및 학계인사 100인에게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 두가지와 부끄러웠던 일 두가지를 상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인 잡지를 지향하는 『불교저널』은 독자를 비롯한 모든 불교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을 공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20세기 100년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영광된 일 두가지와 간략한 이유
2. 20세기 100년동안 한국불교가 겪은 부끄러운 일 두가지와 간략한 이유
3. 기간 99년 8월 30일까지
4.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우편번호 100-380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전화 (02)2265-2421~2 팩스 (02)2265-2420

※ 고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상문 관련기사가 실린 잡지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구독안내
100-381 서울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전화 (02)2265-2421~2 팩스 (02)2265-2420
1년 정기구독료 70,000원